

영국, '아마존세' 검토 오프라인 업체 구제 위해

영국이 온라인 유통업체에 '아마존세' 를 물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사 위기에 빠진 오프라인 업체들을 도와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이유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업체들보다 현저히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새로운 세금 부과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주요 선진국 중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가장 큰 나라" 라면서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있는 하이스트리트(영국의 유명 쇼핑거리)를 지원해야 한다." 고 했다. 그는 또 "EU(유럽연합)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만드는 가치에 맞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협의 중" 이라면서 "국제적인 합의를 얻지 못해도 영국 자체적으로 임시로 세금을 물릴 방안을 찾아 공정 경쟁을 하도록 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해먼드 장관의 발언은 지난 10일 영국 백화점 하우스 오브 프라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나왔다. 다행히 법정관리에 돌입 수시간 만에 스포츠브랜드 업체가 인수 소식을 알리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는 오프라인 소매점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아마존은 지난 3일 영국서 법인세 납부 관련 비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세전 이익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법인세는 2016년 740만파운드에서 지난해 460만파운드로 줄었기 때문이다.

아마존 측은 영국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아마존이 적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잘못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멕, 마약 카르텔 근절 위해 '공동 전담팀' 발족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전담팀을 꾸렸다.

16일 '뉴스핌' 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법 집행 당국은 전날 시카고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를 밀반입하는 마약 카르텔의 자금 차단과 진압을 위해 시카고에 공동 전담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관계가 경직돼 있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양국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 것이다.

멕시코의 연방 범죄 특별수사 담당 법무차관은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멕시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차기 대통령인 오브라도르 당선인이 마약 조직 범죄와의 싸움에 가까이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설명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측도 기자회견에서 "마약 카

르텔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며, 마약밀매 조직들의 자금을 끊는 것이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마약 범죄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멕시코에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과 관련된 정책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강경한 전략이 아닌 평화 협상과 사면을 통한 포용적인 정책으로 마약 카르텔을 진압하는 방안을 역설해왔다.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 진압을 위해 마련해온 강경책은 멕시코 내에서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만 지속시키고 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한편, 미국으로 밀수되는 코카인과 헤로인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는 필로폰으로도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다.

아베 "야스쿠니 참배 못가 죄송" ...'가해' 언급 안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종전기념일(패전일)인 15일 6년 연속으로 일본의 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 에서 "전쟁의 참화를 두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가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총리들은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이후 전몰자추도식에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면서 가해 책임을 언급해왔다. 아베 총리 역시 2007년 1차 집권 당시에는 "전쟁의 반성에 입각해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후 올

해까지 6년째 '반성' 과 '부전'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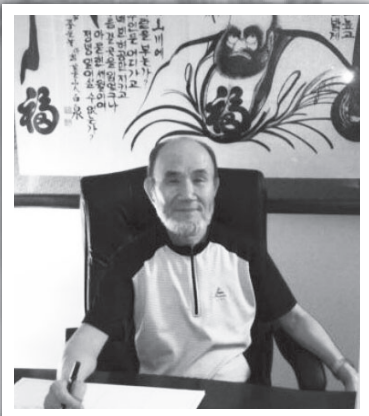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시바야마 마사히코 총재특별보좌를 통해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료를 자신의 돈으로 냈다. 시바야마 총재특별보좌는 아베 총리가 "확실히 참배해달라. 오늘 가지 못해 죄송하다." 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내년 4월 말 퇴임 전 마지막으로 추도식에 참석한 아키히토 일왕은 4년 연속 '깊은 반성'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왕은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